

## Artist's Statement

김귀연

나는 기도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종교와는 상관없이, 생활 속에서 누구나 행하고 있을 바람이라는 심리를 나는 기도라 하고, 기도하는 심리는 보편적이고 원시적인 인간의 순수한 심리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들은 기도라는 정신적인 활동의 증명으로서 주로 반복적인 행위를 행하는데, 나는 반복적인 기도의 결과, 혹은 기도의 흔적으로서 주로 '돌탑'을 모티브로 하여 작업해 왔다. 돌탑은 반복적으로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행위의 집적으로서, 인간의 바라는 심리를 끌어내기도 한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돌을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는 행위는 「바람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돌탑은 「바람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무언가를 바라는 심리는 돌을 쌓는 반복적인 행위의 기도로서 표현되고, 이러한 반복적 행위는 기도하는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나 역시 점과 선과 면들을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거나 옆으로 펼쳐내는 작업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기도와 바람들이 쌓여지는 행위로부터 비롯된 나의 작업은 조형의 기본 요소인 점, 선, 면, 그리고 청, 백색의 절제된 색감과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식 없는 온화하고 푸른빛의 기면器面 위에 중첩된 점과 선들은 작품 속에 쌓여가고, 이러한 요소들은 작품에 새로운 표정을 부여해 준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은 작업을 하며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결과이자 흔적이 된다.

기궤 작업의 경우 물레성형 기법으로 제작한다. 액체가 담겼을 때는 그 동요動搖에 따라 그 일렁임이 보일 정도로 얇게 깎아 백자가 갖는 특성인 투광성投光性을 살린다. 하지만 깎아내는 기술을 과시하거나 투광성 표현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내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작품의 표정 표현인데, 각 개체가 갖는 장식의 형태는 모두 다르고, 그로 인해 작품의 표정도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 외면에 표현한 점과 선은 기벽이 얇아야 기의 내부까지 비치고, 기 외면의 윤곽과 내부의 윤곽 또한 기벽이 얇을수록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기의 형태를 간결하고 담백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앞서 말했듯 나는 무언가를 바라는 심리, 즉 기도하는 마음을 인간이 갖는 가장 원초적이면서 순수한 심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기작업 통해 꾸밈없이 표현하고 싶었고, 그러한 표현 방법의 하나로써 얇은 두께의 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기면에 쌓이고 펼쳐진 점, 선, 면은 나에게 곧 기도이자 바람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표현된 작품의 표정들을 가능한 가감 없이 청아하게 전달하고 싶다. 그리하여 나는 단순히 쓰임에서의 공예적 아름다움 뿐만이 아닌, 얇게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시각적, 조형적, 철학적 아름다움 또한 돋보이는 얇고, 푸르고, 작은 기궤를 제작한다.

평면 작품의 경우 슬립 캐스팅 기법으로 제작한다. 색감의 효과로 멀리서 보았을 땐 잔잔한 파도처럼 고요하고 정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접하게 되는 작품에는 미세한 흠집, 균열, 틈이 존재한다. 또, 작품의 표면에 반복적으로 점을 찍고 선을 그어 중첩하면 작품의 안쪽으로 무수한 점과 선들이 쌓여 면이 형성되는데 이런 요소들은 작품을 동적으로 보여지게도 한다. 이처럼 작품의 표정과 질감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써, 그리고 반복하여 기도하고 바라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석고틀을 사용하는 것이다.

슬립 캐스팅 기법은 반복적인 행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법이지만, 나는 기계적, 기술적, 인위적인 느

낌이 강한 작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갈라지고, 휘고, 뒤틀리고, 주저앉는 등 흠이라는 재료이기에 표현될 수 있는 본연의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 표현한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작업물은 나 자신과 아주 많이 닮아있기도 하다. '나'라는 유일무이한 존재로부터 비롯되었지만 모두가 다른 결과물들. 심리적 동요가 많은 날엔 점조차 예민하게 흔들리고, 정靜하고 편안했던 날엔 숨을 참아 가며 신중히 그어야만 하는 가느다란 선도 곱고, 곧게 그어진다. 작업 초반과 후반의 심리가 다르기에 제작 시기에 따라 표현된 느낌과 색감도 달라져, 한 기물 안에서는 물론, 작업물 전체를 보아도 선 하나, 점 하나, 면 처리 등 표현기법 모두가 다르고, 그것들은 작업에 임했던 나의 매일과 매 순간을 대변한다.

유독 작업에 들어가기 전, 생각과 마음 정리로 심리적 수고가 많은 나는 일본 교토 생활 당시, 목적 없이 자전거를 타고나가 보여지는 풍경을 눈에 담곤 했다. 복잡복잡한 서울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곳에서의 생활에서 눈에 들어왔던 것들은 하늘이었고, 산이었고, 강과 호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푸르렀다. 내가 나고 자란 서울과는 사뭇 다른 환경과 자연을 보며 작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기도, 가족들의 안녕을 바라기도 했다. 타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렇게 그리운 대상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내 작업의 타이틀은 정경情景을 나타낸다. 눈이 부시다 못해 새파랗게 느껴졌던 눈을 청설靑雪 시리즈로, 유난히 긴 교토의 장마 기간에 내리던 맑고 새하얀 비를 백우白雨 시리즈로, 비가 멎으면 지면에서 축축이 피어오르던 안개, 그리고 추운 날이면 히에이잔 종턱에 걸쳐있던 하얀 안개구름들은 조무朝霧 시리즈로, 작업실로 향하던 숲길의 길고 곧게 뻗은 삼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로 눈부시게 비치던 햇살은 숲森 시리즈로 이름 지어 교토, 그 안에서도 내가 살던 이와쿠라에서 보아온 인상 깊은 풍경들을 유현幽玄 한 청색과 백색으로 표현한다.

내가 살던 그곳은 자연이 넘쳐났다. 그런 내 기억 속 교토의 색감은 푸르름이다. 그래서인지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이 푸르게 느껴지기도 했다. 혹자는 푸른색을 시원하고 차가운 색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푸른색은 따뜻함을 표현한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의 나는 교토에서 눈에 담아온 눈, 비, 안개, 그리고 숲으로 그곳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그곳의 사물과 존재들의 안녕을 바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기면器面에 점을 찍고 선을 그어 내린다.